

순방 마친 윤 대통령 ‘국정과제 국민보고대회’ 연다

대통령실 “늦어도 내달 중 열 것” 6개월간 국정 성과 부각에 중점 국민 패널·TV 생중계 등도 검토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처럼 회의 전체나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12월 중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2개월여 만인 2017년 7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 없이 출범한 만큼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등을 공개하는 형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일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통해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 과제 10개를 추가해 120대 과제로 보강, 확정했다.

다만, 지난 7~8월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사실상 일대일로 독대하는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한 만큼 국정과제를 충분히 알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대회는 기존 국정과제를 거듭 자세히 소개하고, 지난 6개월여간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원내 지형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은 점을 진솔하게 밝히고, 향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분발하겠다는 뜻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면 230여 건에 달하는데, 이 중 야당과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20여 건만 겨우 처리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고대회의 구체적인 컨셉트는 미정”이라며 “국민 패널을 초대하거나 생중계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연말 수출전략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이어 또 다른 경제 분야 회의다.

연간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부처가 기업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소위 띄우긴 띄웠는데... 국회서 ‘금투세’ 논의 물꼬 틀까

“2년 유예” vs “내년 도입” 입장차 이재명 대표 ‘신중론’ 발언 눈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세계계편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 도입 시점에 대한 논의가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 계획이 발표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정기국회 입법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투세 유예를 ‘부자감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도 폐지

스북 글에서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볼 보듯 뻔하다”라며 당정에 보조를 맞췄다.

권 의원은 이날도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책이 현실이 아닌 이념과 위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거듭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내부 논의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이지만, 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는 시에는 변함이 없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에 우리가 손을 들어버리는 상황이라면 금투세보다 훨씬 이해관계자가 많고 저항이 심한 개혁과제는 추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최근 ‘동학개미’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상황에도 소관 상임위 간사로서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금투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힘 “외교 동맥경화 해소” vs 민주 “굴욕적인 빈손 외교”

윤 대통령 순방 성과 엇갈린 평가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두고 다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연세 정상회담으로 “한국 외교의 동맥경화가 해소됐다”며 호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빈손 외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심장과 뇌 혈관 곳곳에 혈전(血栓)이 잔뜩 쌓여 있던 한국 외교의 혈맥을 뿔뿔 뚫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미동맹이 살아 있었다. 한미동맹은 허울 좋은 이름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점을 거론, “복원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교 역시 정상화의 길에 올랐다”며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그 전쟁터에서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 국민의힘을 대신해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 등 순방 성과를 거론,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외교 성과가 실질적으로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빈손·굴욕 외교’로 규정하며 비판에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 관련 어떠한 진전도 없었고,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소미아 복원은 굴욕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서비스’로 끝났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공방

초중등 교부금 떼어 대학에 지원

여야는 16일 유지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면서

“재정은 회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의 돈을 써서 재정을 균등히 배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됐고 새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는 중”이라며 “시·도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매년 2조원 가까이 나온다. (초·중등 교육은)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은 “특별회계는 ‘동생 돈 뺏어서 형님만 먹어 살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초·중등 학생 예산을 빼서 대학에 주는 정책을 제발 철폐하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아이들 교육 환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내려가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매우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전날 대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특별회계가 적용 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